‘출전시간 1위’ 르브론, 올해도 가능할까?

2018-2019시즌 NBA리그가 지난 16일 개막했다. LA지역 농구팬들의 관심은 이번 시즌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르브론 제임스에 쏠려있다. 르브론은 과연 레이커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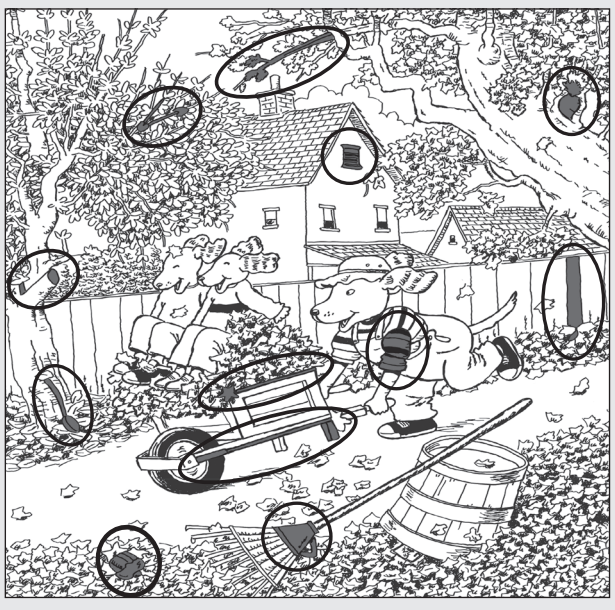
18일 ‘스포티비뉴스’ 에 따르면 오는 12월 만34세가 되는 르브론은 리그에서 가장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시즌 15년 차임에도 평균 36.9분을 뛰면서 평균 출전시간 부문 리그 1위를 기록했다.

루크 월튼 감독은 전날 ESP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르브론과 4년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이번 시즌을 최선을 다해 끝내면서 그의 몸 상태 역시 관리하고 싶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4년을 함께 한다. 1년이 아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나아지고 싶다.” 라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튼 감독은 또 “우리는 르브론의 출전시간을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할 것이다.” 로테이션을 풍부하게 돌리면서 경기를 풀어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빠른 농구를 추구한다. 선수들의 교체가 수없이 이뤄질 것이다. 활용할 선수가 많다.” 라며 르브론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르브론은 “몸 상태가 좋다면 코트에 나가 내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몸 상태가 아니라면 무리해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P31 숨은그림찾기 정답



오승환 “한국 복귀하고 싶다”

오승환(36·콜로라도 로키스)이 한국 프로야구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뉴스1’ 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에서 2018시즌을 마치고 휴식차 한국을 방문한 오승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힘이 다 떨어져서 오는 것보다 힘이 남아있을 때 국내무대에 돌아오고 싶다.” 며 “혼자 생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에이전트가 할 일이다. 외국에서 5년 동안 뛰면서 많이 지쳤다.” 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한국 무대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을 보인다. 오승환의 소속사는 이날 “콜로라도와 맺은 베스팅 옵션이 이미 충족돼 계약은 자연스럽게 내년까지 연장됐다.” 며 “내년에 메이저리그로 돌아가야 한다.” 고 말했다.

오승환은 지난 2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1년 최대 750만 달러에 계약하며 ‘70경기 이상 뛰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 는 베스팅 옵션 조항을 넣었고, 콜로라도는 7월 오승환을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하면서 해당 계약 내용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오승환은 올 시즌 토론토와 콜로라도에서 총 73경기에 등판해 베스팅 옵션 조항을 충족했다. 자동으로 계약은 1년 연장돼 내년까지 콜로라도에서 뛸 수 있다.

소속사는 “선수 본인이 내년에 미국 무대에서 뛰고 싶지 않다고 해도 계약서상 협의내용이 따로 있지 않아 계약을 바꿀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콜로라도가 오승환을 방출하거나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오승환이 내년까지 한국 무대에 복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 지나면 오승환은 메이저리그에서 자유계약선수(FA)신분이 된다. FA 신분이 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이다. 오승환은 삼성 라이온즈 소속의 임의 탈퇴 선수라 삼성과 다시 계약하거나 아니면 삼성이 보유권을 풀어줘야 한다.

또 KBO리그 복귀 시 ‘출장정지’ 문제도 걸린다. 오승환이 해외 원정 도박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복귀 시 해당 시즌 총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라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144경기 체제에서 73번째 경기부터 출장할 수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승환이 출장정지를 감내하면서도 국내 무대에 복귀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이라며 “다음 시즌 거취에 대해선 오승환 본인과 상의하겠다” 고 말했다.

“좌완 필요한 필라델피아, FA 류현진 적격”

시즌 후 FA가 되는 류현진(LA 다저스)이 다저스가 아닌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8일 ‘OSEN’ 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프로스포츠 소식을 다루는 ‘Sports Radio 94 WIP’ 은 전날 ‘필라델피아가 영입을 고려할 만한 좌완 투수 리스트’ 를 소개하며 류현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매체는 “앤디 맥페일 필라델피아 사장은 시즌 종료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우완 선발 일색이다. 좌완 선발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필라델피아는 좌완 선발 보강에 눈길을 주고 있다.” 고 전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7월 왼손 투수인 레인저 수아레스가 선발 투수로 등판하면서 267경기 연속 우완 선발 투수 기록을 끊었다. 최근 2년간 필라델피아 선발진은 오른손 투수 일색이었다. 올 시즌 5인 로테이션을 구성한 선발진은 모두 우완 투수다. 좌완 수아레스는 7월부터 임시 선발로 3경기 던졌다.

이런 이유 대문에 필라델피아의 오프 시즌 중 과제는 왼손 선발을 영입하는 것이다. 매체는 류현진에 대해서 “2018시즌 15경기 선발로 나서 평균자책점 1.97, FIP 3.00, fWAR 2.0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우승을 다투는 컨텐딩 팀의 뛰어난 2선발 또는 3선발이다. 필라델피아에게 적격이다.” 고 평가했다.

매체는 “궁극적으로 류현진이 FA로서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다년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달렸다. 휴스턴은 2016시즌 필라델피아에서 단 4경기 선발로 뛴 찰리 모튼과 시즌 후 2년 계약을 맺었다. 과감한 계약이었다. 휴스턴과 같은 적극적인 팀이 있다면 필라델피아는 류현진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필라델피아는 단기 계약을 할 의향을 밝혔다. 류현진이 1년 계약을 통해 장기 계약 가치(건강과 내구성)를 입증한다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다.” 고 전망했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들
팀·스피릿 부동산 since 1984 TEAM SPIRIT REALTY
INVESTMENT & DEVELOPMENT

싸이프레스, 부에나 팍, 플러톤, 에나헤임, 어바인, O C & LAC전 커버

내집을 사듯,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주택, 커머셜 빌딩, 비즈니스, 사실분 / 파실분 문의환영

TOP Producer DRE#01412143
에블린 로스
evelynross212@gmail.com
714.397.1241

핫 9,000 이상 휴지랏

$61만9천- 에나헤임 방4 화2
관리 잘 되어 있는 단층 단독, 뉴 라미라잇 우드플로워
보너스 룸과 휴지 백야드 / 디즈니와 스타디움 가까움

핫 라지 단층

$62만9천- 에나헤임 방4 화2
스페이셔스 베드룸 체리우드, 라지 키친과 후드
8,600 이상의 큰 땅, 충분한 파킹 스페이스

핫 새집분양
에나헤임: $50만 초반부터~
라하브라: $50만 초반부터~
코스타 메사: $80만 중반부터~
방2 ~ 4 화2.5 ~3
인기 좋은 브랜드 뉴 콘도 분양!
넉넉한 오픈플랜, 4개의 플랜선택, 2차고 부착
한인마켓, 쇼핑, 식당, 교통 편리함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핫 7유닛 커머셜빌딩
$2백 90십만
몬테벨로
식당, 네일숍, 드라이 클리닝
오피스 등 있음.
최근 리모델링된 건물
좋은 인컴 포텐셜
월 인컴 프로포마:$15,000

핫 커머셜빌딩
$59만 5천
O.C- Orange
One Free Standing with
over 8,600 땅. 커머셜 좋은
오피스, 리테일 등
용도 다양함.
절호의 가격, 최저가격

커피 하우스
라크라센타
$12만
고급인테리어, plus patio
사이즈:1,600
코로라 델마
$25만

사이즈:1,280 Sq.ft 최고 위치.
많은 관광객과 주택인근, 번창하고 있는
성장기업과 함께 투자의 포텐셜
좋은 기회입니다.

핫 비즈니스
테리야키- 에나헤임 $19만 5천
최고 위치와 포텐셜도 대~박
햄버거- 코스타 메사 $12만 9천
순익: 8천/ 단독건물
요커트 & 보바, 드링크 – 라크라센타
유명브랜드 요거트 숍,100% 종업원 운영 $15만 5천